



즉시 배포용: 2022년 1월 27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항만 당국 및 라구아르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 라구아르디아 공항의 세계적 수준의 터미널 B에 새로운 터미널 시설을 위한 건설 완공 발표

터미널 B의 40억 달러 전환에 있어 주요 이정표가 될 새로운 여객 시설 완공

터미널 B의 모든 승객, 이제 새로운 게이트, 확장형 콩쿠르 및 세계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춘 "완전히 새로운 라과디아"를 경험하실 수 있음

제2 스카이브리지와 콩쿠르의 개통으로 이중 보행자 스카이브리지를 갖춘 세계 최초의 공항이 된 라과디아

터미널 B, 유네스코로부터 세계 최고의 신공항으로 인정받음

Kathy Hochul 주지사, Rick Cotton 및 뉴욕 뉴저지 항만청 사무총장인 Rick Cotton, 그리고 LaGuardia Gateway Partners의 Frank Scrmin 최고경영자가 라과디아 공항의 터미널 B에서 새로운 시설의 완공을 축하하여 터미널의 40억 달러 전환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터미널 B의 서쪽 스카이브리지가 완공 및 개통되고 12월 터미널 B의 두 번째 중앙홀이 개통됨으로써 터미널 B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은 게이트에서 연석까지 새롭게 건설된 21세기 건축물과 시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월 29일 토요일까지 터미널의 모든 임시 도보가 폐쇄될 예정입니다. 활성 항공기 유도도에 걸쳐 있는 두 번째 보행자 브리지가 완공됨에 따라 터미널 B는 이중 보행자 스카이브리지를 갖춘 세계 최초의 공항이 되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세계적인 목적지로 전환하는 것은 뉴욕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우리의 과감한 비전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4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터미널 B를 통해 여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승객 경험을 제공하여 연결을 용이하게 하고 지속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뉴욕에 걸맞은 새로운 라과디아 공항을 계속해서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이정표를 세운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터미널 B는 유엔기구에 의해 조립된 파란 블루 패널로부터 12월에 "세계 최고의 신공항"으로 유네스코의 베르사유 상을 수상했습니다. 새 터미널에는 135만 평방피트의 새로운 터미널 시설이 포함되며 35개의 게이트, 3,000대의 주차 공간, 택시와 승차 공유 차량을 위한 새롭고 편리한 덮개식 픽업 시설이 있습니다. 터미널은

동급 최고의 소매점, 방대한 식사 경험, 놀라운 예술 및 편의 시설을 갖추어 고객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21 세기 여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건설 중에 터미널이 완전히 기능하도록 유지하면서 관련된 도로 개선 시설과 지원 기반시설이 모두 건설되었습니다. 현재 B 터미널 내부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옛 중앙터미널 건물의 남은 일부분은 운행이 중단돼 철거될 예정이며 2022년 봄쯤 철거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청 사무 총장인 Rick Cotton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라과디아 공항의 터미널 B 의 새로운 승객 시설이 완공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터미널 B 는 최근 유네스코의 2021 년 베르사유 상을 받아 세계에서 최고의 신공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승객의 관점에서, 오래된 라과디아는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태에서 최고의 상태로 발전했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그 어느 누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터미널 B 는 최고의 승객 경험을 제공하며, 세계적인 건축 양식으로 공공 예술과 주목할 만한 상징적인 지역적 영감을 줍니다."

항만청 회장인 Kevin O'Toole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만청은 지역 전체의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곳 라과디아 공항에서는 재개발의 주요 요소가 거의 완료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B 의 설계는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여행객, 항공사 및 공항 직원에게 밝고 환영받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라과디아 팀 전체가 터미널 B 에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노력했습니다."

뉴욕시 Eric Adams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뉴욕시를 다시 움직여야 할 때이며, 이곳 퀸즈의 세계적인 공항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완전히 새로운 라과디아를 만드는 것이며, Hochul 주지사님, 항만청, 그리고 이런 일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신 모든 파트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일을 수행(Get Stuff Done)'하는 방식입니다."

시 의회 Adrienne Adams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미널 B 의 재개발 프로젝트의 완공은 라과디아 공항이 뉴욕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세계적인 시설로 탈바꿈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뉴욕의 가장 중요한 관문 중 하나인 라과디아 공항은 아름답고 현대적이며 환영받는 공항으로 재탄생되고 있으며, 오늘 발표는 완공을 향한 돌파구입니다. Hochul 주지사, 뉴욕 뉴저지 항만청, 라과디아 게이트웨이 파트너 등 주요 교통 인프라 재구축에 대한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뉴욕시 시의회 Francisco Moya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경험은 여행객들이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는 우리가 오늘을 반영하는 시설과 서비스로 그들을 맞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과디아 공항의 터미널 B 전환은 뉴욕시의 관광을 장려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보완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와 코로나 19 로부터의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퀸즈 자치구 **Donovan Richards Jr.**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지역의 관문이자 우리 자치구의 경제 중심지 라과디아 공항의 재개발에 중대한 이정표를 세운 것을 기념합니다. 이 중요한 재개발 프로젝트는 퀸즈 가족과 뉴욕시의 모든 가족들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공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지원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과 항만청, **LaGuardia Gateway Partners**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레이터 뉴욕 건축 및 건설 무역 위원회의 **Gary LaBarbera**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이정표는 뉴욕이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는 세계적인 교통의 중심지로 라과디아 공항의 미래를 다시 상상하기 위한 또 다른 중요한 발자취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수천 명의 중산층 경력을 창출하는 한편, 이 중대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탁월하고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주신 Hochul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건축 및 건설 무역 위원회 위원들은 **LGA**의 터미널 **B**가 향후 몇 년 동안 뉴욕 교통 인프라의 초석이 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LaGuardia Gateway Partners의 **Frank Scremin** 최고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과디아의 신규 터미널 **B**는 뉴욕 시민들, 항공의 미래, 그리고 민관 협력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과입니다.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 도시를 세계적인 공항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지사님과 항만청의 리더십과 우리의 지분, 경영, 건설 파트너들, 기록적인 수의 소수자, 여성 소유 기업들, 그리고 뉴욕 시민들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어 이러한 일이 가능했습니다. 신규 터미널 **B**는 승객 경험과 우리 모두가 함께 일할 때 달성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춘 21세기 공항 시설의 훌륭한 사례입니다."

"아일랜드" 콩쿠르를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이중 보행자 스카이브리지 터미널 **B**의 가장 뚜렷한 건축 요소 중 하나인 스카이브리지 한 쌍은 활성 항공기 택시 전용 차선에 걸쳐 있으며, 빛으로 가득 찬 새로운 도착 및 출발 홀과 터미널의 두 아일랜드 콩쿠르를 연결합니다. 이 모든 것은 동급 최고의 양보와 승객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개의 스카이브릿지가 건설되어 2마일 이상의 유도로 공간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게 되어, 도착과 출발의 지연을 줄이고 고객이 탑승구까지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비행기들은 2021년 봄부터 동부 스카이브리지 아래를 통과하여 2022년 여름부터 성공적으로 서부 스카이브리지 아래로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터미널 **B**의 게이트에 도달하기 위해 새로운 스카이브리지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맨해튼 스카이라인의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이 482피트, 지상 60피트 높이의 두 개의 보행자 브리지는 신공항 터미널 설계의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이중 브리지는 구조적으로 인상적이지만 활주하는 항공기가 게이트로 들어가거나 나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고객들은 터미널 B의 동쪽 게이트에 접근하기 위해 완성된 스카이 브리지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터미널의 트윈 아일랜드 콩쿠르는 출발과 도착 시 비행기가 더 많은 공간과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전에는 관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하나, 나가는 길이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항공기 이동이 차단될 수 있었습니다.

라과디아 재개발 프로젝트 소개

2015년에는 현대적인 고객 편의시설, 최첨단 아키텍처, 더 넓은 게이트 역역 및 균일화된 터미널 시스템을 갖춘 21세기 세계 수준의 승객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라과디아 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종합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80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약 2/3는 민간 자금 조달과 기존 여객 수수료를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2016년 착공되었습니다.

2018년 2월 주차 공간 및 우버(Uber)와 리프트(Lyft) 및 임대 차량 전용층을 갖춘 새로운 터미널 B의 주차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주차장에는 총 3,000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2018년 12월 터미널 B에 처음 18개의 신규 게이트와 첫 번째 콘코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2019년 10월, 델타 항공은 첫 번째 새로운 중앙홀과 7개의 새로운 게이트를 개설했습니다. 2020년 6월, 터미널 B의 급증하는 신규 도착장과 출발장이 문을 개장했습니다.

2020년 8월, 터미널 B의 두 번째 새로운 중앙홀이 첫 번째 게이트를 개방한 데 이어 2021년 12월에 추가 게이트를 개방했습니다. 터미널 C에 있는 델타의 새 도착장 및 출발장은 2022년 봄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라과디아 공항의 터미널 B는 최근 [세계 최고의 신공항](#)으로 세계적인 건축 및 디자인상인 유네스코의 2021년 베르사유 상을 받았습니다. 이 중요한 상은 한때 국내 최악의 공항으로 여겨졌던 것을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기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